

예수님을 유혹하는 악마  
두초(Duccio di Buoninsegna 1260-1319년경)  
1308-1311 템페라 43.2x46cm  
프리 컬렉션 미국

## 입당송 | 시편 91(90),15,16

나를 부르면 나 그에게 대답하고 그를 해방시켜 영예롭게 하리라. 오래오래 살도록 그에게 복을 내리리라.

## 제1독서 | 창세 9,8-15

## 화답송 | 시편 25(24),4-5,7ㄴ,6과 7ㄴ,8-9(◎ 10 참조)

◎ 주님, 당신 계약을 지키는 이들에게 당신의 모든 길은 자애와 진실이옵니다.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

○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

하소서. ◎

○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한 이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한 이 당신 길 알게 하신다. ◎

## 제2독서 | 1베드 3,18-22

## 복음환호송 | 마태 4,4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 복음 | 마르 1,12-15

## 영성체송 | 마태 4,4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광야에서



허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오늘 듣는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까지 꽤 긴 시간에 관한 짧은 내용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광야로 가십니다. 복음은 이것을 성령께서 하신 일로 소개합니다. 광야를 나타내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광야' 또는 '외딴곳'으로 번역됩니다. 인적이 없는, 군중들로부터 떨어진 조용히 머물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실제로 복음에서 이 낱말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장소로(마르 1,35), 군중을 피해 쉬셨던 장소로(마르 1,45; 6,35) 표현됩니다. 이미 이런 내용은 광야가 단지 유혹의 장소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이면서 휴식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장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광야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잊을 수 없는 장소입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한 백성이 사십 년간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 사십 년은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여정이 됩니다. 하느님께서 광야에서 백성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고(탈출 3,14 참조) 계명을 주셨으며, 만나를 통하여 일용할 음식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광야에서 하느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사제와 같은 백성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에게 중요한 모든 것들이 외딴곳인 광야에서 이루어집니다. 히브리어로 광야의 뜻이 '말씀'과 연결된다는 것은 많은 것을 생

각하게 만듭니다. 비록 광야가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고 모든 것이 결핍된 곳이지만, 오히려 하느님께서 이곳에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그들과 함께하십니다. 광야는 이런 의미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광야에서 사람들은 하느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광야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홀로 남겨지고 쉽사리 희망을 찾기 어려울 때, 우리는 광야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역설적으로 그곳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그곳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유혹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시험합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우리의 눈이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모든 것이 유혹입니다. 광야는 모든 것을 떠나 홀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사순 시기는 '광야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절제와 보속의 시간이면서 은총과 자비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사순 시기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주님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광야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그분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 예수님을 유혹하는 악마

이 그림은 초기 르네상스 화가인 두초의 작품으로, 두 천사의 시중을 받고 계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유혹하는 사탄에게 호통을 치고 계신 장면을 그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입고 계신 금빛 테두리의 푸른색 겉옷은 천상을 의미하고, 붉은색은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사탄은 가장 악한 존재로서 검게 그려져 있습니다. 사순 1주일을 시작하며 이 성화를 통해 복음이 우리 각자에게 전하는, 모든 유혹에 맞서 뛰어난 수 있는 회개와 믿음의 가치를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가톨릭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성화  
해설

신지철 바오로 신부 | 교구 성미술 담당

## 내어준다



유임봉 스테파노 | 작가

미술 작품, 특히 회화 작품을 보면 색채와 명암 그리고 인물이나 피사체의 공간 배치 등으로 작품의 메시지가 표현됩니다. 그리고 관객은 그 안에서 작가의 의도를 찾으려 작품을 감상하게 됩니다. 저는 캘리그래피를 ‘아름다운 글씨로 그림을 그리는 회화 작품’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씨는 단어 안에 이미 그 의미를 담고 있기에 은유적인 회화 작품과는 달리 매우 직관적입니다. 하얀 한지에 검은색 먹물로 표현되는 단순한 기법 안에서 더군다나 이미 직관적인 내용들을 회화적으로 담아내는 일은 많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글씨의 다양한 변화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작품에 담기는 문장에는 영화나 연극처럼 주연과 조연이 존재합니다. 또한 행인과 같은 단역도 여럿 존재합니다. 가는 선들이 반복되는 곳에서는 굵은 선이 강조되며 주연이 됩니다. 반대로 굵은 선이 반복되는 곳에서는 가는 선이 주연이 됩니다. 작은 글씨 안에서는 큰 글씨가, 큰 글씨 안에서는 작은 글씨가 대비가 되고 강조됩니다. 그리고 한 획을 그으면 반드시 빈 공간이 만들어지며 그러한 공간들이 여백이 되고 생각하는 공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크고 작은, 굵고 가는 낱글자들과 하물며 여백마저도 작품 안에서는 모두가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또한 하나의 글자는 인접한 다른 글자에 자기의 공간을 내어주며 그렇게 서로의 공간 안에서 함께 교차하며 짜임새 있는 구도를 만들어 냅니다.

제게 캘리그래피와 새김 예술을 배우는 회원분들은 매년 연말에 ‘글씨 피정’을 합니다. 지도 신부님의 주제 강의와 글씨를 통한 나눔, 그리고 파견 미사를 통해 한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계획하는 시간으로 채워지는 피정입니다. 이 피정 중에는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 혹은 기도문을 조별로 묵상하고 개인이 느낀 점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함께 글씨를 쓸 말씀 구절을 정하고 공동작업 작품을 완성합니다. 작업을 하는 시간에는 어떻게 쓸지 서로 논의하지 않고 반드시 침묵합니다. 쓰는 순서를 정하고 한 사람이 한 글자씩 돌아가며 씁니다. 이 작업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삶의 방향을 발견합니다. 앞선 사람은 다음 사람의 글자를 위해 공간을 배려합니다. 뒤에 있는 사람은 앞 사람의 의도를 생각해 보고 부족한 공간을 채워줍니다. 이기적인 작업이 아닌 이타적인 작업이며 여러 명이 썼음에도 완성된 작품은 훌륭한 조화를 이룹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자신의 일부를 내어주는 일을 참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 기꺼이 이웃에게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렇게 ‘내어줌’으로써 공동의 행복을 향하며, 특별한 ‘사랑’을 체험합니다. ‘내어준다’와 ‘사랑한다’는 말은 성경 안에서도 늘 함께합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셨다.”(요한 3,16)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요한 15,13) 소중한 체험을 허락하신 주님께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를 통하여 당신 사랑의 기적을 계속하십시오.’



한  
것  
교리

바티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가이며,  
동시에 인구도 가장 적습니다.  
(2023년 기준 764명)  
작년에 우리나라와 수교한 지  
60년이 되었으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가장 먼저 승인한 국가입니다.

## 하느님께서서는 광야를 통해 우리를 자유로 이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을 계시하실 때 언제나 다음과 같은 자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낸 주 너의 하느님이다.”(탈출 20,2) 자유로의 부르심은 힘든 요구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집트에 매여 있던 것처럼, 희망이 없다고 느끼는 순간들에 우리는 참으로 그러한 속박에 매여 있음을 깨닫습니다. 사순 시기는 은총의 때입니다. 이 은총의 시기에, 광야는 다시 한번 우리 첫사랑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호세 2,16-17 참조)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백성을 형성하시어 우리를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죽음에서 삶으로 건너가는 파스카를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사순 시기를 구체적으로 거행하려면, 그 첫걸음은 현실에 눈 뜨기를 바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당신께서는 보시는 하느님, 무엇보다도 들으시는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 주셨습니다.(탈출 3,7-8 참조) 오늘날에도, 억압받는 수많은 우리 형제자매의 울부짖음이 하늘까지 올라갑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우리는 그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나요? 그 울부짖음이 우리를 괴롭게 하나요? 아니면 우리를 움직이나요?’

사순 시기는 회개의 시기, 자유의 시기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사순 제1주일에 기억하듯,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유로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광야는 다시는 노예 상태에 빠지지 않겠다는 개인적인 결심을 통하여 우리의 자유가 성숙해질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유혹과 탈출기가 분명히 보여 주듯이, 이는 어떤 싸움이 따르는 일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 된다.”(탈출 20,3) 하느님의 이 목소리에 원수와 그의 거짓말이 대적합니다. 파라오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 우리 스스로 세운 우상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는 못

무기력하게 만들고, 만남 대신 갈등을 낳습니다.

이제 행동할 때입니다. 사순 시기에 행동한다는 것은 또한 멈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 기도 안에서 멈추고, 사마리아인처럼 다친 형제나 자매가 있는 곳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기도와 자선과 단식은 서로 관계없는 세 가지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짓누르는 우상들과 우리를 구속하는 집착을 쫓아버리는, 개방과 자기 비움의 단일한 행위입니다. 그렇게 할 때 위축되고 외로웠던 마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우리는 형제자매가 되고, 서로에게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꿈이자, 우리가 노예살이를 뒤로한 채 여행을 떠나는 약속된 땅입니다.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은, 사순 시기가 시류를 거스르는 크고 작은 공동체적인 결정들을 내리는 때라는 것도 시사합니다. 저는 모든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이것을 꼭 실천하도록 초대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단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마태 6,16) 이렇게 하는 대신, 가장 작은 이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부터 시작하여, 다른 사람들이 기쁨 가득한 얼굴을 보게 하고, 자유로운 느낌을 받도록 하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사랑을 체험하도록 합시다.

이번 사순 시기가 회개의 때가 된다면, 불안해하는 인류는 새로운 희망의 불꽃인 솟구치는 창조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찾아 나가고, 위험을 감수할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는 막대한 위기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의 고통스러운 애원을 듣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단편적으로 치러지는 제3차 세계 대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말마의 고통이 아닌 생명을 창조하는 과정에, 그리고 마침이 아닌 역사의 위대하고 새로운 장의 시작점에 머무르며 우리의 세상을 바라볼 용기를 냅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위한 용기가 필요합니다.”(리스본 대학생들에게 한 연설, 2023.8.3.) 이러한 것이 회개의 용기이고,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면서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사순 시기 여정을 축복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Francisco*

#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1코린 1,23)

사랑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우리 교구의 모든 구성원에게 하느님의 자비가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한 사순 시기를 다시금 맞이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번 사순을 보내며 우리 교구 공동체가 교회 안팎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아우르는 동반의 길을 걷도록 형제적 사랑 안에서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지난 2021년 말부터 시노드를 통해 이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시노드는 단지 과거의 일회적 경험으로 종결(終結)된 것이 아니며, 우리의 구체적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시노드 교회를 향해 함께 가는 길은 이상적·추상적 담론(談論)에 머물 수 없으며,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현실과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과 이루는 내적 일치와 깊은 친교, 적극적 선교와 능동적 참여를 통하여 열매 맺을 것입니다. 시노드 교회야말로 이웃에게 경청하는 신앙의 모습이며, 우리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꿰뚫는 신앙의 이정표를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그중에서도 청소년·청년들과 동반할 기회와 가능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은 계층 이동성이 갈수록 악화되는 시대 한복판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런 외중에 각종 조사를 통해 나타나는 청년들의 탈종교화 현상은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위로와 힘을 찾지 못하고 있

음을 보여줍니다. 청년들과 함께하는 여정에서 그들과 솔직하게 소통하며 이들을 격려하여, 교구의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그들 스스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신앙 안에서 한층 성장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 시기는 타성에 젖어 각자 삶의 자리와 울타리 안에만 머물지 말고, 본당과 본당 밖, 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들을 향한 따뜻한 관심으로 그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선교의 교회로 전환하는 기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누군가와 동반하는 이 신앙의 길은 '기도와 사랑의 나눔' 없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수난과 고통을 기억하며, 우리는 사순 시기 동안 일상 속의 기도와 참회와 속죄 그리고 사랑의 나눔으로 그분 십자가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 은혜로운 사순 시기에 하느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시노드' 정신으로 '청년, 청소년'과 동반하며 '기도와 사랑의 나눔'을 통해, 이웃과 함께하며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분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 평양교구장 서리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정순택



마르코와 함께 떠나는 복음 여행

# 가까이 다가온 하느님 나라

(마르 1,14-15)



이영제 요셉 신부 | 가톨릭대학교 문화영상대학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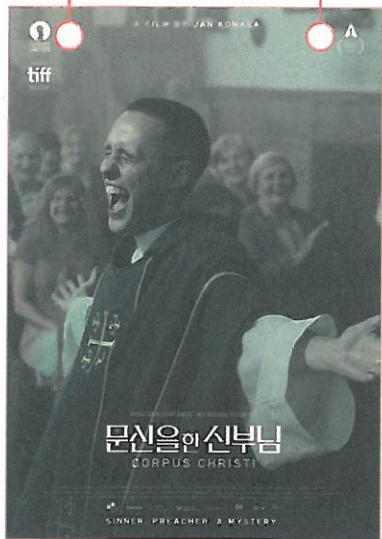
사십 일 동안 광야에서 단식하시며 사탄의 유혹을 받으신 후,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 앞에 나서시어 다음과 같은 말로 당신의 공적인 삶, 곧 공생활을 시작하십니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1,15) 이는 앞으로 당신이 완수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요약해 주는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에 놓여있는 인간을 해방하시어 당신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시키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원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 되어 오셨고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원하신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장엄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마르코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느님 나라의 도래가 도대체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관이 있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느님은 먼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특히 가난 때문에 율법의 규정들을 성실히 지키지 못해서 늘 하느님의 은총 밖에 머물러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은 너무나 먼 곳, 마치 저 멀리서 그들을 심판하고 벌을 주시기 위해 대기하고 계시는 존재처럼 여겨졌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끼니를 겨우 해결해야 하는 사람들, 온갖 질병으로 헤어 나올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 죄인임을 알기에 하느님 앞에서 얼굴을 들고 그분과 마주할 수 없는 아픔을 지닌 이

들. 예수님께서서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하느님은 자비로운 너희의 아버지시다. 온갖 시련에서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분이시며, 너희의 아픔과 굶주림을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느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자신이 지은 죄와 온갖 인간적 나약함에 짓눌려 살아가는 이들이 자유와 해방을 체험하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이 하느님 나라입니다. ‘구원’이 말 그대로 어려움에 놓여있는 이를 도와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라면, 하느님 나라는 참된 구원을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온 하느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지금껏 하느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마치 하느님처럼 섬기며 살아왔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하느님의 모습을 보고 듣고 깨달아 자신의 전 존재를 그분께로 ‘돌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기쁜 소식’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투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어려움에서 해방되어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을 지금, 이곳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그분을 온전히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에 이르는 길이며, 구원의 길입니다.



2019년 감독 '얀 코마사'



영화 '문신을 한 신부님'

# '그리스도의 몸'과 '아멘' 사이

▶ 그동안 업로드된 비하인드 영화칼럼을 유튜브 채널 <가톨릭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구본석 사도요한 신부 | 행당동성당 부주임

신부들의 복장인 클리지 셔츠를 입고 거리를 걷다 보면 간혹 생면부지인 교우에게 인사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가 운집한 공간에서는 복장을 보고 저를 신부로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행동거지 하나하나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됩니다. 이처럼 인사를 받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다른 이들의 시선이 신경 쓰일 때 저는 로만 칼라를 뺀 채 클리지 셔츠를 입어 저의 신원을 가립니다. 반대로 신부의 신원이 드러나야 하는 장소에서는 짹째 로만 칼라를 채웁니다.

폴란드 출신인 얀 코마사 감독의 영화 <문신을 한 신부님>은, 신부의 정체성을 드러내 주는 복장이 품은 의미를 개인의 편이에 따라 달리 활용했던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 작품입니다. 영화는 소년원에 복역 중인 스무 살의 다니엘(바르티시 비엘레니아 분)을 주인공으로 삼습니다. 출소를 앞둔 다니엘은 평소 따랐던 토마시 신부(루카시 심라트 분)에게 출소 후 신학교에 입학하고 싶다는 뜻을 전합니다. 하지만 토마시 신부는 다니엘이 전과자 신분이어서 신학교 입학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짚어주며 목공소에서 일할 것을 추천합니다. 출소한 다니엘은 토마시 신부가 주선한 목공소로 향하던 중에 한 마을 성당의 주임신부를 대신해 얼떨결에 신부 역할을 맡게 됩니다. 소년원에서 훤칠 클리지 셔츠를 입고서 아슬아슬하게 신부 행세를 이어간 다니엘은, 열정적인 사목과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로 마을 사람들과 성당 신자들에게 신뢰를 받게 됩니다. 한편 마을은 일 년 전

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생긴 상처 때문에 반목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였는데, 다니엘은 기존의 성직자들이 보인 모습과는 다른 방식으로 마을 사람들의 치유와 화해를 위해 나섭니다.

영화 속 다니엘의 모습은 '성(聖)과 속(俗)' 같은 이분법적인 구분이 지닌 모호함을 꼬집습니다. 다니엘의 몸을 휘감은 문신과 다니엘이 신부를 사칭하는 데 사용되는 클리지 셔츠는 묘한 대조를 이루며, 이분법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를 비판적으로 묘사합니다. 한편 마을이 겪은 비극적인 사건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극명하게 갈린 상황을 해결하려는 다니엘의 모습은, 마치 다니엘 자신이 이전에 지었던 잘못을 속죄하기 위한 모습처럼 다가옵니다. 이제 다니엘은 가짜 신부임을 들켜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에서, 진짜 신부처럼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모습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문신을 한 신부님>의 원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Corpus Christi'입니다. 성과 속, 선과 악 등을 단순화하여 이분법적으로 구분 짓는 태도는 '그리스도의 몸' 뒤에 이어질 '아멘'이라는 고백을 기계적인 응답처럼 만들어버립니다. 세상 모든 이를 위하여 당신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세상을 마주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과 '아멘' 사이에 놓인 빈 공간을 더욱 묵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그리스도의 몸'과 '아멘' 사이를 깊은 성찰과 고민으로 가득 채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궁금한 이야기



'궁금한 이야기 YOUTH'는 주일학교 청소년과 청소년 사목에 함께하는 동반자(사제, 수도자, 교사, 자모회 등)의 인터뷰를 담아 신앙생활과 주일학교 이야기를 소개하는 매월 셋째 주 서울주보 청소년 특집입니다.

편집 서울대학교 청소년국 중고등부  
청소년 사목부서 미디어부



**두 번째 인터뷰!**

## 이문동성당 중·고등부 주일학교 담당 신부님과 교감 선생님

다채로운 주일학교 행사로 청소년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문동성당 중·고등부 주일학교! 담당 신부님과 교감 선생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이준혁 바오로  
보좌신부님



서영준 스테파노  
교감 선생님

###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Fr.이 바오로** 이문동성당 이준혁 바오로 신부입니다. 2022년에 서품을 받고, 이문동성당에서 주일학교 친구들과 청년 그리고 전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 스테파노** 이문동성당 중·고등부 주일학교 교감, 서영준 스테파노입니다.

### 이번 2월호에서는 '하느님의 부르심과 소명'에 대해 나눠보려 해요. 처음 하느님의 부르심을 느꼈던 순간이 언제 인가요?

**Fr.이 바오로** 2005년 4월 2일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선종하셨다는 소식을 전하는 뉴스를 보면서 '나도 저분이 가신 길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주교 집안도 아니었는데 하느님께서 교황님을 통해 제 마음을 움직이시고, 사제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서 스테파노** 저는 대학에 가면서 이사를 해 성당을 옮기게 되었어요. 이문동성당에서 처음 미사를 드리면서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고, 주일학교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 사제로서, 교리교사로서 느끼는 소명이 궁금해요.

**Fr.이 바오로** 저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그들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우리와 함께 사셨듯이 저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제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려고 해요.

**서 스테파노** 주일학교 학생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실천하는 것을 교리교사로서 소명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 그 소명을 지키고 행하기 위해 어떤 실천을 하고 있나요?

**서 스테파노** <교사의 기도>에 나와 있듯 학생들에게 천국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면서도 저 자신은 그 길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기도, 교구 연수, 성서모임, 피정 등을 통해 개인 신앙 성장도 이루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Fr.이 바오로**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대화의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격이 내향적인지라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이 들었는데, 주님의 도우심으로 어떻게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활용해 이웃과 대화하며 기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부르심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서 스테파노** 주일학교에 잘 참여하기! 교리와 캠프 및 피정 등을 통해 학생들이 하느님께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일학교가 많이 도와줄 거예요.

**Fr.이 바오로** 친구들 각자의 마음에서 들려오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을 줄 아는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쯤 시간을 내어 마음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하고 귀 기울여 보세요. 침묵 가운데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면 여러분도 그분의 목소리를 알아챌 수 있을 겁니다.

###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서 스테파노** 주일학교가 청소년 여러분 신앙생활의 행복과 즐거움으로 오래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Fr.이 바오로** 하느님의 부르심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이문동성당 이준혁 바오로 신부님과  
서영준 스테파노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 인준단체 알림

### 모임

####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쉽고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4년 연중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3월8일~10일·3월13일~16일(추자도)·3월18일~20일·3월23일~26일(추)·4월1일~3일·4월6일~9일(추)·4월11일~13일·4월16일~18일·4월20일~22일·4월24일~26일·4월28일~5월1일(추)·5월2일~4일·5월6일~8일·5월17일~19일·5월22일~24일  
문의(접수): 064796-4182, 02773-1455 제주 자연 피정

####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함께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문의(접수): 064756-6009, 02773-1463 제주 자연 피정

자연	3월16일~18일, 5월14일~16일, 5월27일~29일, 6월10일~12일, 6월22일~24일, 7월19일~21일, 8월23일~25일
성지	3월21일~24일, 4월13일~16일, 4월25일~28일, 5월2일~5일, 5월8일~11일, 5월19일~22일, 6월3일~6일

#### 지리산 피아골 피정 / 문의: 010-3712-8119

피아골 피정	출발 3월1일, 6월21일, 7월19일
부산교구	3월12일~14일 원주·춘천 4월12일~13일
홍성남 신부와 성지순례	고도나가사기 4월1일~5일 북해도 6월3일~7일

#### 가정선교회 3월 피정·미사

때, 곳: 12시30분~17시, 가톨릭회관 3층·1층 강당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토요 피정과 성모신심 첫미사	3월2일(토) / 김현우 신부
성가정 영성 피정	3월6일(수) / 박현민 신부, 이현주 회장
치유·회복을 위한 찬양 피정	3월16일(토) 한철호 신부 / 찬양: 고영민 부회장, 정진숙, 손현희 팀장

#### 교구 성지순례·성베네딕도왜관수도원 전례·탐방

문의: 010-3807-1784 라이스돌(왜관·성베네딕도 피정의 집)

국내	3월14일~17일(전주 11곳·광주 4곳)·4월5일~8일(제주도·추자도·차귀도)·4월13일~15일(수도원·대구 17곳)·5월4일~7일(수도원·부산 8곳·마산 6곳)·서울 명동(대형버스) 출발
국외	5월15일~27일, 바티칸·이탈리아·독일 수도원

####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기도회

곳: 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버스 환승 500·504·6512·5535 천주교성령봉사회관 하차 / 02867-7900

주일기도회	(일) 13시20분~17시	미사: 16시
월요일기도회	(월) 18시30분~22시	미사: 21시
치유기도회	(수) 13시~17시	미사: 16시
로사리기도회	(목) 13시~17시	미사: 16시
철야기도회	(금) 18시~22시	미사: 21시
생명축복기도회	(토) 16시~19시30분	미사: 18시
청년(루하)기도회	(금) 19시30분~21시30분	미사: 20시30분

혼인성소 찾기 피정 / 문의: 010-3173-2665  
접수: 다음카페 'oh oh my half' / 최영민 신부(예수회)

#### 젊은이 해외선교체험

대상: 40세 이하 미혼 남녀(신자) / 문의: 010-5715-1702  
아씨의 프란치스코 선교수녀회 젊은이사도직 때, 곳: 7월17일~24일(7박8일), 필리핀 마닐라

### 교육

스테인드글라스 성물 만들기(가톨릭스테인드글라스회)  
자세한 내용 카페(lukeglass.com) 참조 / 문의: 02324-0852

#### 생활성서사 성경학교

개강: 3월5일(화) 오전 10시~12시 / 010-2531-5239  
곳: 생활성서사(전철 4호선 수유역 근처)  
회비: 학기당 5만원(바이블 아틀라스-교재비 별도)

#### 음악심리 상담사 자격 초급반

때, 곳: 3월5일~19일 매주(화) 13시30분~16시30분, 한국음악치료연구소(전철 3호선 대청역) / 회비: 15만원  
문의: 010-4252-1165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

#### CaFF영화제작워크숍 12기 수강생 모집

때: 3월6일~6월15일 매주(수) 19시~21시20분(15주)  
접수: 홈페이지(caff.kr) 참조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 그리스도 레지오회 강좌·모집 / 문의: 022258-8983

1) ENGLISH BIBLE STUDY-창세기(인물 소개)  
때: 2월23일부터 (금) 10시~11시30분(12회)  
곳: 레늄크리스티 영성센터(서초동)

홈페이지: www.legionariesofchrist.kr  
2) 해외가톨릭사립학교 신입생 모집  
대상: 초5~고1 / 수도회 운영 해외 학교 법인 미국, 아일랜드 단·장기 학교 입학 및 대학 컨설팅  
홈페이지: www.oakinternational.co.kr

#### 2024년 1학기 '여정' 성경공부 / 문의: 010-7194-3780

때: 3월4일~6월7일 / 접수: 2월18일~28일(회비: 7만원)  
대면·비대면 동시 진행 / 주최: 여성성서교육관

	10시~12시	20시~22시
3월4일(월)	마르코복음서	마르코복음서
3월5일(화)	성경통독(신약성경)	
3월6일(수)	오경	오경
3월7일(목)	역사서2	
3월8일(금)	마태오복음서	

특강: 바오로서간-로마서: 강선남 박사 / 신학특강: 조한규 신부

### 모집

#### 명동대성당 가톨릭합창단 상반기 신입단원 모집

대상: 만 18세~만 39세 남녀 가톨릭 신자  
활동: (일) 12시 교중 미사 및 대축일 미사  
오디션: 3월9일(토) 13시30분, 명동대성당 문화관 3층 3월7일(목)까지 이메일 접수(명동성당 홈페이지(PC버전) 단체 모집) / 문의: 010-3211-5195 (문자)

#### 카리타스 합창단 신입단원모집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소속  
대상: 55세 미만 남녀 교우 / 연습: 매주(월) 19시 가톨릭성가 또는 자유곡 / 010-2244-3602 박해순

#### 명동대성당 로고스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20~30대 가톨릭 신자 / www.logoschoir.org  
활동: (일) 16시 미사 및 대축일 미사 등 / 010-3006-0810  
오디션: 3월10일(일) 17시, 명동대성당  
명동성당 홈페이지 단체모집란 참조(pc버전)

### 미사

#### 첫토요일 신심미사(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내용: 켈기도, 미사 /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때, 곳: 3월2일(토) 9시30분~12시, 가톨릭회관 3층

####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월례미사

내용: 특강, 고해성사, 미사, 성체조배  
때, 곳: 2월19일(월) 13시~16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 안내

#### 꼬메스심리상담소(도미니코 수도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주 1회)  
문의: 010-3201-0520 노경덕 신부(상담자)

####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곳: 인천 서구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하늘의 문 성당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접수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60년(30년 봉양 후 30년 연장 가능)  
봉헌금: 400만원·500만원 / 준공: 2024년 하반기(예정)  
문의: 032)765-7251(http://haneul.caincheon.or.kr)

####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ein.com) 토요상담 가능  
개인심리치료: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등  
가족심리치료: 부부, 가족(자녀)간의 갈등, 행동문제, 대인기피

#### 전진상 영성센터

곳: 명동 / 문의: 02)726-0700(www.jiscen.or.kr)  
자아의 통합과 영성: 대면강의 및 그룹훈련 3월7일부터 매주(목) 14주, 치유적 강의 10시~11시 30분, 그룹훈련 11시30분~13시 온라인 동영상 녹화강의 / 학기별 30만원

인문학 산책-주역과 삶의 지혜 I: 3월13일~5월29일 매주(수) 14시~16시

### 유관단체 알림

#### 한민족독기회 통일기원 미사

주례: 신희준 신부 / 문의: 010-8126-5676  
때, 곳: 2월27일(화) 14시,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101호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예수의 까리따스 수녀회(서울관구)	2월25일(일) 10시~15시	서울관구 본원(전철 2·4호선 사당역 1번 출구)	010-5830-3217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2월24일(토)	유기서원소(선잠로 9-6)	010-8573-0567
천주교서울교구제신교회	수시	선교회	010-2749-4596, 02)749-4596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게재된  
신간 검색

📀 디지털 앨범

가톨릭성가  
연중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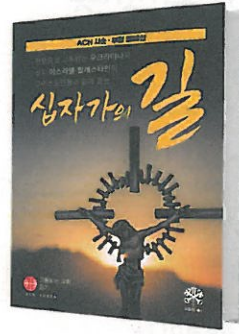


성바오로딸수도회  
문의: 02)944-0895

가톨릭성가 401~480번까지 수록된 디지털 앨범. 신자들이 평소에 즐겨 부르는 성가들을 가톨릭합창단의 합창과 명동성당 파이프 오르간의 깊은 울림으로 새롭게 감상할 수 있다. 멜론, 지니, 스포티파이, 유튜브 브뮤직 등 국내외 음원 사이트에서 들을 수 있으며, 음원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는 이들은 유튜브 채널 '바오로딸뮤직앤'에서 감상할 수 있다.

📖 신간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와  
성지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



고통받는 교회 돕기 한국지부 ACN Korea 지음  
40쪽 | 무료배포  
문의: 02)796-6440, 010-7475-6440

전쟁 중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굳건히 신앙의 증인으로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위해, 악에 맞서는 강력한 무기이자 희망과 치유의 원천인 기도로 함께할 수 있다.

📖 신간

축복받은 성경 읽기  
티모테오에게 보낸 첫째·둘째서간  
티토·필레몬에게 보낸 서간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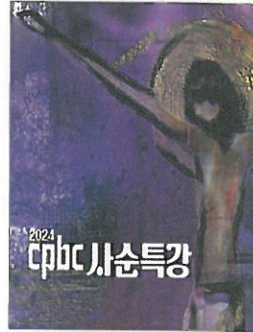


가톨릭 성서모임 엮음  
성서와함께 | 64쪽 | 4천원  
문의: 02)822-0125

성경 본문을 충실하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쉬운 문제집' 날권 시리즈이다. 별다른 주석서나 해설서가 없어도 성경만 보면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들을 수록했고, 말씀의 봉사자가 없어도 누구나 진행할 수 있는 단순한 구성으로, 개인 혹은 단체에서 성경 읽기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 방송

2024  
cpbc 사순특강



방송 날짜: 2월 18일(사순 제1주일), 2월 25일(사순 제2주일), 3월 3일(사순 제3주일), 3월 10일(사순 제4주일), 3월 17일(사순 제5주일)  
방송 시간: 주일 8:00, 월 23:00, 화 20:00, 수 8:00, 목 16:00 / 문의: 02)2270-2621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파스카의 밤을 기억하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가톨릭평화방송에서 '2024 cpbc 사순특강'을 준비했다. 사순 제1주일부터 제5주일까지 각각 한 주씩 방중우 신부님, 한민택 신부님, 김의태 신부님, 신웅 신부님, 김태광 신부님께서 차례로 강의에 나선다.

🎵 콘서트

JU콘서트  
2nd 음악이 있는 나무요일



일시: 2월 29일(목) 19시 / 무료 입장  
장소: 청년문화공간JU 1층 카페  
문의: 02)338-7830

2월 29일(목) 19시, 청년문화공간JU에서 <2월 JU콘서트 2nd 음악이 있는 나무요일>이 진행된다. 청년문화공간JU는 지난해 새롭게 개관하며 청소년·청년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휴식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되도록 콘서트를 기획했다. JU콘서트는 앞으로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마다 월례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3월은 성주간으로 행사 없음)

🎤 공연

헤화나무  
클래식 포유  
'봄이 오는 소리'



입장권: 1만3천원(기업은행 005-116491-04-019 (재)천주교성바오로딸수도회)  
신청-문의: 010-9759-0882 (문자)

헤화나무 <클래식 포유> '봄이 오는 소리'가 3월 9일(토) 4시부터 80분간, 바오로딸 헤화나무 지하 공연장에서 열린다. 김수연 바이올리니스트와 김성진 클래식 기타리스트가 들려주는 봄의 소리를 온몸 가득 느껴볼 수 있다.



제2시대문 · 마포지구 대표본당  
**진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지구장신부 : 최성기(헨리코)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부주임신부 : 백종원(마르코)

부주임신부 : 박진호(사도요한)

연령회장 : 이범지(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유아세례	홀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 주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혼인면담	매월 셋째 주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성모신심미사	매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백종원 마르코 부주임 신부 환영미사  
새로 오실 부주임신부님께서 본당 공동체에서 복되고 건강하게 지내시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영미사 : 2월 18일(주일) 11시 교중미사

◎ 본당 소속 단체 홍보  
5월말 까지 신입단원 및 단체 봉사자 모집을 위한 홍보를 미사 시간 및 성당마당에서 진행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성서와함께> 문서선교 일정 안내  
<성서와함께>에서 신앙에 도움을 주는 도서와 성물을 홍보할 예정입니다.  
신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 : 3월 2일(토)~3(주일)


◎ 십자가의 길  
일시 : 2월 16일(금) ~ 3월 22일(금)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미사 후  
\* 3월 29일(금) 오후 3시

◎ 전신자 사순 봉헌카드(실천표) 배부 : **오늘까지**

◎ 여성구반장회합 : 2월 18일(주일) 12시 / 소성전

◎ 성소후원회 미사 : 2월 20일(화) 오전 10시  
\* 성소후원회 미사 30분 전부터 묵주기도를 시작합니다.  
\* 10시미사 후 201호에서 회합이 있습니다.

◎ 병자영성체 : 2월 23일(금) 오전 10시미사 후

◎ 2024년 첫영성체반 신청안내  
대상 : 초등부 3~6학년  
신청기간 : 2월 3일(토)~25일(주일)   
방법 : 온라인 신청서 및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첫모임 : 3월 2일(토) 오후 3시 미사 후 304호  
자세한 사항과 문의처 : 온라인 신청서 참고

◎ 청년 사순시기 성경필사 & 마니또  
일시 : 2월 18일(주일) 오후 7시 10분  
중간모임 - 3월 10일(주일)  
마니또 발표 - 3월 31일(주일)  
대상 : 청년 누구나 / 장소 : 지하 식당  
문의 : 비아 연합회장 (010-2550-2375)

◎ 청년성서모임 새암성서 봉사자/그룹원 모집  
일시 : 3월 3일(주일)까지  
과목 :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문의 : 마태오 대표봉사자 (010-2479-9331)

◎ 전입교우를 환영합니다 (1월~2월)

성명	세례명	구역/반	성명	세례명	구역/반
이수민	안나마리	1-1	문지영	베드로	1-3
김명숙	헬레나	2-5	조희선	율리아	3-1
박옥주	마리아	3-3	이용석	가브리엘	3-4
박지영	소피아	5-1	조인빈	보나	5-2
윤이래	엘리사벳	6-3	성달호	요셉	7-2
한지훈	베드로	9-2	김중훈	그레고리오	9-5
김수진	크리스티나	9-5	박소현	레이철	10-2
김영남	안젤라	10-2	윤현정	아델라이드	10-4

◎ 전입 교우 환영식

일시 : 2월 25일(주일) 11시 교중미사 중

◎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준비

'묵주기도 10억단 바치기 운동' 참여

서울세계청년대회 개최 전까지 함께 하는 묵주기도 운동에 교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방법 : 묵주기도 5단(묵주알 1개)을 바칠 때마다 성전 앞에 비치된 묵주기도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4. 2. 11)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3년 책정율	2023년 납부율
2,028	504 (24.9%)	443 (21.8%)	43.7%	42.3%

교무금계좌번호 | 우리은행 | 137-04-110875

◎ 감사헌금 (2월 5일~11일)

곽선모	오천원	이정금	일십만원
박안토니오	이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익명	일십만원	이영주	이십만원
권수희	오만원	최일곤	일십만원
고영은	일십만원	김주연	오만원
김종민	오만원	김건민	오만원
김기현	일만원	김기철	일만원
김수호	일만원	미리클합창단	일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연중 제6주일)

교무금 .....9,145,000원  
주일헌금 .....4,871,000원

입당	115	봉헌	216,510,220	성체	153,182,175	파견	123
----	-----	----	-------------	----	-------------	----	-----



주님 당신 계약을 지키는 이들에게 당신의 모든 길은 자애와 진실이옵니다